

가을바람 살랑... '제철 먹거리' 활용 신메뉴 출시 봇물

할리스 문경 오미자 등 신메뉴 3종
보니밤 크림라떼·치즈케이크 선봬

CJ푸드빌 사과·밤 활용 신메뉴
수줍은 사과·애플 블랙티 등 출시

JW메리어트 '올 어바웃 머쉬룸'
6종 버섯볶음 '퐁기 샐러드' 준비



'보니밤 크림 라떼', '보니밤 치즈 케이크' / 할리스

전통 먹거리에 대한 인기와 안심이 높고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프리미엄 먹거리 출시가 확대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카페 업체들은 밤과 사과를 활용한 디저트로 고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는다. 먼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할리스는 보니밤, 문경 오미자와 같은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가을 신메뉴 3종을 선보였다. 국내산 밤을 속절없이 잘 익힌 보니밤으로 독특한 식감과 단맛을 살린 '보니밤 크림 라떼'와 '보니밤 치즈 케이크'가 대표적이다. 가을을 대표하는 밤으로 계절감을 담았을 뿐 아니라, 정성과 시간을 들여 만드는 보니밤을 활용해 맛과 신뢰도를 모두 높였다.

할리스의 '보니밤 크림 라떼'는 스페셜티 원두를 블렌딩한 블랙아리아에 연유와 보니밤 크림을 얹어 커피 폼이,

달콤함, 고소함이 잘 어우러진다. 달콤한 보니밤 크림과 뛰어난 향미의 블랙아리아가 만나 부드럽고 진한 가을의 맛을 선사한다. '보니밤 치즈 케이크'는 시트에 보니밤을 넣어 은은한 밤 맛을 느낄 수 있다. 마스카포네 생크림, 밀크 가나슈를 올려 달달하면서도 부드러운 뿐 아니라 밤크림으로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 산을 연상시키는 비주얼로 보는 재미까지 더했다.

할리스가 준비한 또 다른 가을의 맛은 '문경 오미자 사과 스무디'다. 당도 높은 국내산 사과와 문경 오미자가 맛의 조화를 이루는 과일 스무디로, 청정 자연에서 자라 국내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문경 오미자가 새콤달콤한 맛을

자아낸다. 가을 제철인 과일이 만나 최상의 단맛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황금빛 사과와 붉은 오미자가 빛어내는 오묘한 색감이 단풍을 떠올리게 한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푸레쥬르도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인 사과와 밤을 가득 담아낸 베이커리 4종 및 음료 1종을 선보였다.

달콤한 사과잼과 나타드코코를 더해 식감을 살린 케이크 '수줍은 사과'와 원물감을 그대로 살린 '사과 만난 크림 치즈 브레드'가 대표적이다. 달콤한 사과 베이스에 은은한 홍차 향의 잉글리시 블랙퍼스트를 가미한 과일티 음료 '애플 블랙티'도 만날 수 있다.

밤을 활용한 제품 2종도 선보인다. '밤을 담은 밤팜 크림빵'은 달콤한 통팜과 밤을 담은 쫄깃한 빵 속에 은은한 밤 크림을 듬뿍 넣은 제품으로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3000원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도 연다.

호텔업계도 완연한 가을을 맞아 제철인 식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식음료 메뉴를 선보인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포만감이 높고 낮은 열량을 자랑하는 가을 식재료 '버섯'을 미시적으로 선별하는 프로모션 '올 어바웃 머쉬룸'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모든 버섯의

맛과 영양소를 풍부히 전하는 '퐁기 샐러드'를 준비해 참송이, 새송이, 백만송이, 모델 등 6여 종의 버섯볶음과 싱그러운 레몬 바질 드레싱을 조화롭게 선보인다.

또 표고버섯과 만가닥 등 다섯여 종의 버섯을 치즈와 베이컨 그리고 토마토소스와 조합해 갈조네 모양얼담아 튀겨낸 '머쉬룸 포켓 피자'와 먹물 치아바타에 스테이크와 참송이와 새송이 등의 구운 버섯을 담은 '머쉬룸 블랙 잉크 파니니'도 만나볼 수 있다. 가을 대표 요리는 11월 15일까지 가을 기간에 한해 판매한다.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은 지역의 제철 특산물을 적극 이용해 한국의 맛을 담은 가을 디저트를 선보였다. 먹골 황실 배에 바닐라 무스를 더한 '먹골 황실 배 디저트', 우도의 땅콩을 넣어 크런치한 식감이 돋보이는 '우도 땅콩 케이크'를 비롯해 총 4종으로 구성됐다. 전통 음식을 보존하는 프로젝트인 '맛의 방주'에 등재된 식자재를 주재료로 채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페 프랜차이즈와 호텔 업계가 발빠르게 가을 신메뉴로 소비자의 입맛 공략에 나섰다"며 "식음의 계절인만큼 건강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팝업스토어 전경.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헤라' 日 대형쇼핑몰에 '팝업'

글로벌 럭셔리 메이크업 브랜드 헤라가 일본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헤라가 8월 31일부터 일본 도쿄 시부야의 대형쇼핑몰 '스크램블 스퀘어'에서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브랜드 대표 제품을 직접 써보고, 헤라 소속 아티스트들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메이크업 서비스와 메이크업 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경험할 수 있다.

팝업 오픈에 이어 9월 1일에는 일본 최대 규모 뷰티 정보 플랫폼이자 멀티 브랜드숍인 '아토코스메' 도쿄, 오사카점에 공식 입점했다. 일본 시장에서 블랙쿠션, 센슈얼 누드밤, 센슈얼 누드 글로스 등 브랜드 대표 제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신원선 기자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서 편두통 치료 특허 획득

부작용 줄여... 18년간 독점적 권리
삼화성·만성 편두통 임상 2상 '순조'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보툴리눔 독신 제제 '나보타'의 특허를 획득하며 글로벌 보툴리눔 독신 치료 시장 진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독신 제제 '나보타'의 편두통 치료 특허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나보타'는 기존 보툴리눔 독신 제제에 비해 투여 횟수를 줄이고 투여 위치도 변경해 사용 편의성을 높여 부작용을 줄인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편두

통 치료 특허로 인해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2041년까지 독점적 권리를 보호 받게 됐다.

무엇보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화성(간헐적) 편두통과 만성 편두통 치료를 위한 임상 2상도 순조롭게 이어질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9년 이온바이오파마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나보타'

의 글로벌 치료 시장 진입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미국 소재 바이오의약품 기업인 이온바이오파마는 보툴리눔 독신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한다.

향후 대웅제약은 편두통 외에 ▲경부 근긴장 이상 ▲위 마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치료 적응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온바이오파마에 따르면 경부 근긴장이상 적응증은 올해 중 2상을 종료하고 2024년에는 3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위마비 적응증은 임상 2상 신청계획서를 제출했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적응증은 전임상 단계에 있다. /이청하 수습기자 mlee236@

KGC인삼공사, 과천에 R&D센터 오픈

3821㎡ 규모 총 9개층 사용

KGC인삼공사가 경기도 과천에 R&D센터를 열고 연구 개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연구 역량을 고도화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해 치열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연구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KGC인삼공사 R&D센터는 과천 지식산업센터 내 위치했다. 3821㎡ 규모로 9개층을 사용하는 R&D센터는 기존 대비 1.7배 정도 공간을 확장하고, 첨단 장비도 신규로 도입하며 차별화된 R&D 기반 시설을 구축했다.

전세계 최고의 인삼 및 홍삼 제품 분

석기관인 KGC인삼공사 R&D센터는 2010년 KOLAS인정 획득,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인삼 진세노사이드 성분 분석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센터에서는 원료와 소재의 다변화 연구를 위해 홍삼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현지 원료에 대한 연구분석 및 제품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지구온난화로 인삼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스마트 팜 시설 안정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홍삼 진세노사이드의 면역력에 대한 공동연구도 강화한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명품 증류주' 선물세트 출시

일품진로 오크43 등 3종

하이트진로는 9월부터 명품 프리미엄 증류주 소주 선물세트 3종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프리미엄 증류주 소주 3종 '일품진로'(알코올 도수 25%), '일품진로 오크43'(43도) 및 '진로 1924 헤리티지'(30도·사진)를 각각 특별한 술잔과 함께 선물세트로 담는다.

먼저 하이트진로 99년 증류주 노하우의 정수인 일품진로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온더락잔 2개로 구성했다. 일품진로는 증류 초기와 말기의 원액은 과감히 버리고 향과 풍미가 가장 뛰어난 중간 원액만 사용, 영하의 온도에서



특징이다.

로열프리미엄 증류주 '일품진로 오크43' 선물세트는 375ml 2병과 온더락잔, 스트레이트잔 각 2개씩 1세트로 담았다. '일품진로 오크 43'은 하이트진로가 엄격한 관리하에 오래 보관해온 '12년 묵통 원액'과 일품진로를 블렌딩한 제품이다. /신원선 기자

잡미, 불순물을 제거하는 냉동여과공법 후에 최적의 숙성 기간을 거친다.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넘김과 은은한 맛을 구현한 것이

신세계인터내셔널 사카이·칼하트윅과 협업

신세계인터내셔널이 7일 패션브랜드 '사카이(Sacai)'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칼하트윅(Carhartt WIP)'의 협업 컬렉션을 사카이 청담전문점에서 선출시한다. 정식 출시는 오는 10일이며 신세계백화점 사카이 전 매장을 통해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칼하트윅의 스트리트 감성과 사카이 특유의 믹스매치를 활용해 트렌디한 워크웨어룩을 완성했다. 칼하트윅은 미국 오리지널 워크웨어로 유명한 칼하트윅 스트리트 감성으로 재해석해 선보이고 있는 패션 브랜드다. /김서현 기자 seoh@